

어촌 소득 증대 방안에 관한 연구 : 어업의 소득을 중심으로

김성귀* · 홍장원**

A Study on Policies to Increase the Income of Fishing Villages Focused on Non-fishing Income

Kim, Sung-Gwi · Hong, Jang-Won

〈 목 차 〉

I. 서론	
II. 어촌의 소득 여건	3. 실증 분석
III. 어업의 소득 증대 방안	4. 어업의 소득 증대 방안
1. 농업 및 해외 사례의 경우	V. 결론
2. 어업의 소득 증대를 위한 방안	참고문헌
들에 대한 평가	Abstract

1. 서 론

우리나라의 수산업은 어업자원의 고갈과 이에 따른 상대적인 낮은 소득 증가로 각종 어촌사회의 문제점을 노정시키고 있다. 아울러 어촌사회의 생활환경의 악화, 교육의 질 하락, 노령화·부녀화 심화, 정보화의 낙후 등으로 어촌의 공동화는 가속화되고 있어 이에 대한 시급한 대책 수립이 요망된다. 이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요인은 아무래도 어촌의 소득 감소라고 말할 수 있다.

여러 가지 어촌의 소득 증대 방안 중에서 자원의 감소로 더 이상의 어업 소득 증대는 어려운 상황에서 이제는 새로운 소득의 증대 방안을 검토하여 보아야 할 시점이라고 판단된다. 특히 최근에는 어업의 소득원 개발이 주목을 받고 있어 이러한 것들을 동시

접수 : 2003년 11월 15일 게재확정 : 2004년 10월 9일

*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연구위원

**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책임연구원

에 고려하면서 어촌 사회가 가지는 기타의 여러 가지 자원을 평가하여 어촌 소득 증대 방안이 수립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먼저 어촌이 처한 현실을 살펴보고 어업의 소득 증대에 대한 검토를 통하여 어업의 소득 증대 모델을 수립하고 대어민 설문조사 결과 분석과 국내의 사례를 검토하여 이러한 모델과의 합일성을 검증하고자 하였다. 또한 어촌 사례분석을 통하여 이러한 모델의 현실성 여부를 검토하였다.

II. 어촌의 소득 여건

1999년까지만 해도 31만 5천명에 달하던 어촌 인구가 2001년에 23만 4천명, 그리고 2002년에는 21만 5천명으로 급속히 줄어들고 있어 그 동안 우려되던 어촌 공동화가 더욱 가속화되고 있다. 이러한 어촌 인구의 급속한 감소는 첫째 수산자원의 급속한 감소에 의한 소득 저하가 가장 큰 원인이 되고, 그 다음으로 어촌 생활 환경의 낙후, 그리고 우리 국민들이 중시하는 교육 여건의 낙후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이들 요인 중 먼저 수산업의 여건을 살펴보면 최근에 타결된 한·중, 한·일 어업 협정으로 인하여 어장은 대폭 축소되었고 연안오염과 간척매립 등으로 어업자원의 지속적 감소현상과 어장생산성의 하락하고 있다. 어업생산은 90년대 초까지는 350만 톤까지 지속적으로 늘다가 2002년에는 248만 톤으로 떨어져 이 수준에서 계속 정체되고 있다¹⁾.

또한, 인건비 상승에 따른 어업경영비의 급격한 증가, 국내 수산물 시장의 개방화에 따른 어가의 하락 등으로 어업소득은 한 자리 수 증가를 나타내고 있다. 특히 어가와 도시근로자 및 농가와의 소득격차가 벌어져 있고, 2002년에는 농가의 89%, 도시근로자의 65%에 불과하며 동기간 소득의 연평균증가율도 도시근로자 가구 보다 낮은 편이다²⁾.

어업자원의 고갈로 어업소득은 정체되어 있어 어업의 소득의 증대가 중요한 관건으로 등장하고 있는 바 특히 어업의 소득의 60% 정도가 농업 소득으로서 이 역시 증대에 한계가 많기 때문에 어촌관광 등과 같은 새로운 어업의 소득원 개발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측면에서 어촌에서 이루어져야 할 어업인 소득 향상 방안중 어업과 겸업인 농업의 소득 증대가 어려운 여건을 고려하여, 특히 어업의 소득을 중심으로 검토하고자 한다.

1) 자료 : 해양수산부, 「해양수산통계연보」, 각년도.

2) 자료 : 경제기획원 조사통계국, 「도시가계연보」, 2000 및 해양수산부, 「어가경제조사결과보고」, 2001.

〈 표 1 〉 어가경제 주요지표(호당평균)

구분	1994	1998	2000	2001	2002
어업소득	8,665(50.6%)	9,254(55.1%)	10,078(53.4%)	11,087(49.8%)	10,165(46.6%)
어업외소득	5,719(33.4%)	5,201(31.0%)	5,313(28.1%)	6,504(29.2%)	6,465(29.6%)
농업소득	3,404	2,706	-	-	2,285
기타겸업소득	603	918	-	-	1,261
사업외 소득	1,712	1,706	-	-	2,920
이전수입	2,726(15.9%)	2,339(13.9%)	3,484(18.5%)	4,661(20.9%)	5,185(23.8%)
어가소득	17,110(100.0%)	16,794(100.0%)	18,875(100.0%)	22,252(100.0%)	21,816(100.0%)

자료 : 해양수산부, 「수산행정기본자료」, 2002.

Ⅲ. 어업외 소득 증대 방안

1. 농업 및 해외 사례의 경우

어업외 소득의 증대 방안을 검토하기 위하여 여기에서는 먼저 농업의 경우와 일본 등 외국의 사례를 함께 검토하여 어업외 소득의 증대 방안을 검토해 보고자 한다.

우리나라 농업에서 농업 소득은 47% 전후를 나타내며 33% 전후의 농외소득은 겸업 비중이 낮고 주로 사업외 소득이 주종을 이루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농업은 \농업의존도가 크게 높고 겸업사업을 갖는 비율이 크게 낮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다음에 나오는 일본 사례와 대조적이며 일본의 경우에는 농업소득이 낮고 노임소득 등 대체 소득원의 비율이 크게 높다.

우리나라 농촌에서는 농업의 소득 증대를 위하여 1970년대의 새마을 공장 사업을 중심으로 추진되다가 1980년대 들어 농공단지 개발, 특산단지 개발, 농수산물 가공 산업 육성, 농어촌관광 소득원 개발 등 다양한 사업이 추진되어 왔다. 특히 이러한 정책 효과를 고양하기 위하여 1983년 12월에 『농외 소득원 개발촉진법』을 제정·공포하였다³⁾.

그러나 이러한 정책이 실패로 끝나자 다시 1990년 이후 「농어촌 발전특별조치법」을 제정하여 본격적으로 농업구조개선사업에 착수하였다. 여기에서 농어촌특산물생산단지, 농공단지 등의 양대 사업이 추진되고 여기에 임가공사업, 산지농산물가공사업, 전통식품 개발사업을 추가 도입하였다. 아울러 민박마을 지정, 농어촌휴양단지 개발사업을 보강하여 농어촌관광 사업을 확대하였다. 여러 가지 법률에 의하여 농업에서 시행되는 여러 가지 농업외 소득사업의 종류를 보면 〈 표 2 〉와 같다. 그러나 UR 협상이 타결되고 WTO 체제 출범에 따라 농외 소득원 개발사업은 다소 위축되었다.

3) 이 법에 의거하여 농공단지, 특산단지, 농어촌관광 소득원 개발, 농산물 가공산업 육성 등의 농외 소득원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었다.

〈표 2〉 농가경제 주요지표

구 분	2000	2001	2002
1. 농가소득	23,072	23,907	24,475
▶ 농업소득	10,897 (47.2)	11,267 (47.1)	11,274 (46.1)
- 농업조수입	19,514	20,193	19,951
- 농업경영비	8,617	8,927	8,677
▶ 농외소득	7,432 (32.2)	7,829 (32.7)	8,140 (33.3)
- 겸업소득*	1,435	1,491	1,454
- 사업이외소득**	5,997	6,338	6,686
▶ 이전수입*	4,743 (20.6)	4,811 (20.1)	5,060 (20.7)

자료 : 농림부 홈페이지, 2003.

* : 임산물, 수산물, 사업, 공업, 일반서비스업 분야 소득

** : 일시 및 계절적 취업, 완전 취업, 농지나 시설 및 장비 임대 등의 수입

* : 정부 지원, 출가한 가족의 송금, 사례금, 퇴직금 등의 수입

〈표 3〉 농업의 농외소득 사업

항목	내용	근거법	기여도 여부
농공단지	공업화를 통해 농촌지역 균형 발전을 이루고 농외소득원 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 법률 •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 공장입지및배치에관한법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국 295개 단지 지정 • 주로 공업화지역 입지만 활성화 • 농업인취업을 20% 전후로농외소득 증대 기여에 미약
특산단지	농가보유기술과 농촌의 유희자원을 활용하여 농외소득 증대	1983년 농어촌소득원 개발촉진법, 1990년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664개 단지중 373개가 민속공예품 나머지는 농산자재(93), 섬유 직물(91), 공산물(75), 석재(32)등임
농산물 가공산업	농산물을 원료로 가공품을 생산·판매하여 수요증대와 부가가치 창출에 기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98년까지 1,390개소에 시설비 3,118억원 지원 • 전통식품업체 77.8%, 나머지 일반산지 가공업체 • 농가경영참여시 부가가치 제고, 취업시 노임소득제고 효과가 큼
농촌관광	도시민의 여가 수요를 농촌에 끌어들여 도시민의 정서 함양과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	여기에 농어촌정비법(1994)에 의거 관광농업사업, 휴양단지사업, 주말농원 추진, 이외에 1991년부터 민박마을사업 추진	농촌관광이 특화된 테마로서 정착되지 못하고 IMF 등으로 도시민 여가수요위축으로 관광소득원 사업도 위축됨

즉 이들 사업은 1990년 이전까지 활발히 이루어지다가 우루과이 라운드, IMF, WTO 등 외부 여건에 의해 농업의 근본적인 경쟁력의 문제가 심각히 도전을 받아오면서 상당히 위축되어 왔다.

농업의 경우를 본다면 어업의 소득 증대를 위하여 공업발전, 특산물 개발, 유통·가공, 농촌관광 등이 주요 항목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 다음으로 일본의 사례를 보면 일본의 어업소득 의존도는 약 '01년 현재 47% 수준으로 우리보다 다소 낮은 편이다. 반면 어업의 소득에서는 노임소득이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는 일본어촌에서는 국토의 균형 개발이 비교적 잘 이루어져 공장 등 취업 여건이 좋아 노임소득의 기회가 많은 편이기 때문이다. 특히 < 표 4 > 와 같이 1985년 이후의 자료를 보면 성장률에서 노임소득이 다른 소득보다 압도적으로 높아 어업소득이 도시 근로자 소득과 유사한 수준을 유지하는 주요 요인이 되고 있다. < 표 5 > 와 같이 일본 농업의 경우에도 농업소득 의존도가 15%내외 밖에 안 될 정도로 노임 등 기타 소득의 비율이 높은 것은 비슷한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국토의 거점 개발 방식으로 불균형 개발이 심화되었고 연안지역에서도 일부지역을 제외하고는 거의 공업시설이 부재하여 이를 통한 노임 소득 기회가 거의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별도의 사업의 소득 증대 방안의 도출이 요망된다.

< 표 4 > 일본 어가경제의 추이

(단위 : 천엔)

	85년	'93	'95	'97	'00	'01
어 가 소 득 (A)	5,310	6,592	6,475	7,156	6,739	6,375
어 업 소 득 (B)	2,732	3,251	2,825	3,424	3,071	2,995
노 임 소 득	1,170	1,610	1,760	1,786	1,550	1,547
그 외 소 득	1,409	1,731	1,890	1,946	2,118	1,833
가 처 분 소 득 (C)	4,489	5,674	5,560	6,203	5,772	5,442
가 계 비 (D)	3,740	4,307	4,348	4,471	4,443	4,466
경 제 잉 여	749	1,367	1,212	1,732	1,329	976
어업의존도(B)/(A) (%)	51.4	49.3	43.6	47.8	45.6	47.0
가계비충족률(B)/(D) (%)	73.0	75.5	65.0	76.6	69.1	67.1
평균소비성향(D)/(C) (%)	83.3	75.9	78.2	72.1	77.0	82.1

원자료 : 농림수산성, 「어업경제조사보고(어가부문)」에서 작성, 인용자료 : 일본어업백서, 수산청, 1998

주 : 1) 수치는 어선어가(歷年), 소형정치망어가(歷年) 및 해면양식어가(年度)의 가중평균임.

2) 가치분소득 = 어가소득 - 조세공과 제부담

3) 경제잉여 = 가치분소득 - 가계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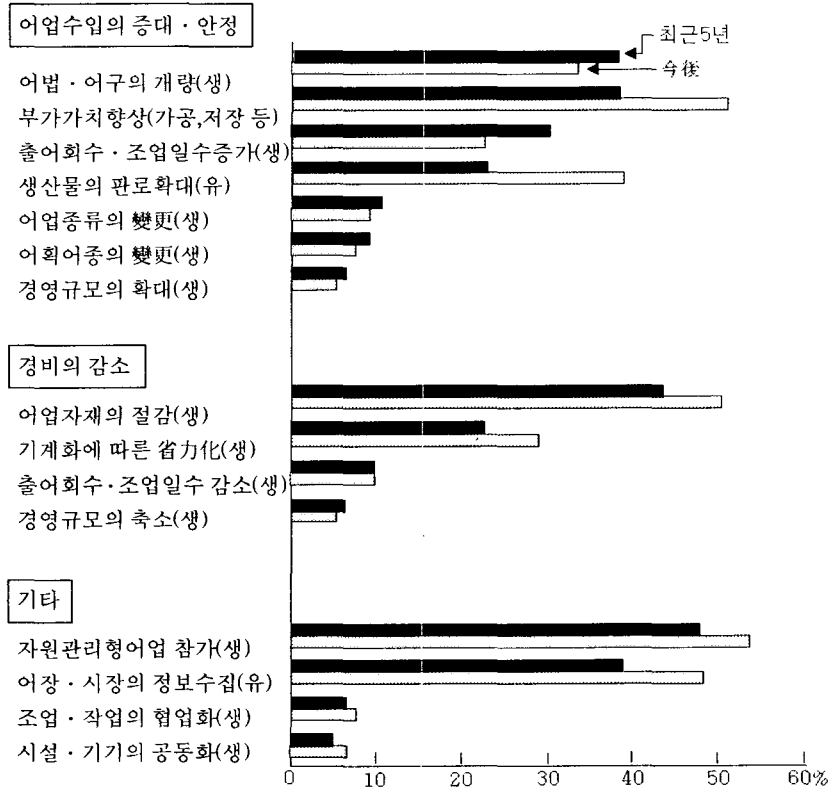
4) 일본과 비슷한 맥락에서 노임 획득을 통한 농의 소득을 높이기 위하여 농공단지 조성 사업이 추진되었으나 노동력 부족이 일어나기 시작한 1980년대 이후에 사업이 추진되어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다.

〈표 5〉 일본 어가, 농가 및 전국노동자세대의 소득 추이

(단위 : 천엔)

		85년	'90	'95	'96	'97	'01
일 세 대 당	어가소득(A)	5,310	5,942	6,475	6,959	7,156	6,375
	어업소득	2,732	2,811	2,825	3,294	3,424	2,995
	어업의존도(%)	51.4	47.3	43.6	47.3	47.8	47.0
	농가소득(B)	6,926	8,407	8,923	8,941	8,800	8,022
	농가소득	1,066	1,163	1,442	1,388	1,203	-
	농업의존도(%)	15.4	13.8	16.2	15.5	13.7	-
	전국노동자 세대소득(C)	5,338	6,261	6,850	6,954	7,143	6,614
	(A)/(B) (%)	76.7	70.7	72.6	77.8	81.3	79.5
	(A)/(C) (%)	99.5	94.9	94.5	100.1	100.2	96.4

자료 : 앞과 동일



〈그림 1〉 自營 연근해 어업세대의 경영개선의 구조(복수응답)

*(생) : 생산에 관련되는 사항들을 표시 (유) : 유통분야

자료 : 앞과 동일

〈그림 1〉은 일본의 연안 어업인들을 대상으로 향후 어업의 경영 개선 방향을 질문한 것으로 각 문항들을 보면 주로 생산에 관련되는 것이 많고 일부 유통과 부가가치 향상에 관련되는 것들이 있다. 이들 중 앞으로 비중이 높아질 부문은 일부 생산쪽 요인들과 가공, 저장, 유통 부문들이 상당히 비중 높게 나타나고 있어 이에 주목해야 할 것이다. 특히 이들 어업 생산이외의 부문이 중요해질 것이라는 것이 본 연구에도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해 준다고 볼 수 있다.

2. 어업외 소득 증대를 위한 방안들에 대한 평가

먼저 어업소득 개선 사업의 원칙은 일단은 어업인이 어업소득만으로도 생계를 충당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다. 어업소득만으로 생활비를 충당치 못하면 어업외 소득에 지나치게 의존하게 되고 어업외 소득의 비중이 커지면 어업은 부업으로 전락되어 어업 발전 자체가 불투명하게 된다. 어업을 산업으로서 발전시켜 나가야 할 어가는 어업에 전념하면서 그 결과 얻어지는 소득으로써 생활을 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런 후에 부차적으로 어업외 소득원의 개발을 통한 어가소득 증대를 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어업 경쟁력 강화를 통한 일정 수준의 어업소득 유지를 전제로 어업외 소득원의 개발이 이루어져야 한다.

박기혁등(1990), 김병택(2002) 등은 농어촌에서의 농어업외 소득 증대를 위하여 가장 중요한 핵심으로서 강조되는 것은 농어촌의 공업화이며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공장이 지방 분산을 장려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지금까지 우리나라 농어촌에서 실시된 농공단지의 유치는 상당부분 실패로 끝나고 국토계획상의 공업화에 의한 균형 개발 정책도 아직까지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는 이러한 공업화 정책의 실패로 일본과 대만과 같이⁵⁾ 노임 획득 기회를 통해 농어업외 소득을 누리는 경우와 다르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즉 이왕에 일반공업을 유치하는데 실패한 바에는 어업과도 공존이 가능하면서 어업인들의 적극적 참여와 기존 어업 경쟁력 강화 등 등 도시적 산업의 성격을 갖는 산업이 아닌 어촌입지와 어업과 연관을 맺을 수 있는 산업이 어촌에 입지하여야 한다. 특히 이러한 산업으로서서는 어촌에서 나는 어업 생산물을 이용한 산업이거나 어촌에서 나는 자원을 이용하는 것으로서 기존의 어업 유지에 도움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또한 전제가 되어야 한다. 앞의 사례들에서 논의된 내용들을 중심으로 어업외 소득 증대 방안들을 평가해 보면 〈표 6〉과 같다. 단지 조성에 장기간과 막대한 자금이 소요되는 일반

5) 일본과 대만의 경우 농외소득이 농가소득의 주류를 이루고 있지만, 이 농외소득 자체는 농촌공업화의 심화를 통하여 획득되는 것이므로 농업생산과 내용적으로 경합적이지 않다.

〈표 6〉 어업의 소득 증대 방안 검토

소득개발방안	검 토	효 과	비 고
일반광공업 단지 개발에 의한 노임소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어촌에서 젊은 인력이 없어 노동력 확보 등에서 현실성이 떨어짐 • 교통, 편의 시설 등의 여건상 어촌에서의 공단 조성 여건이 불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단 유치 등이 어려워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공장 유치가 거의 어려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공단지에서 입지 여건이 좋은 곳 외에는 가동률이 극히 낮음
특산품 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성있는 특산품 개발시 소득 증대 효과가 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 자원을 고려하여 활용할 경우 어느 정도의 효과 예상 	
가공산업 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업 생산물을 적극 활용하여 부가가치 제고 방안 검토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촌가공단지 산업과 마찬가지로 어업의 소득 제고에 상당히 유리할 것임 	
관광 소득원 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수욕장, 바다낚시 등 해양관광 인구가 많아 농촌에 비해 관광의 여건이 훨씬 유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 여건이 좋은 경우 상당한 효과가 예상됨 	
유통 효율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재 수산물 유통 마진이크므로 이를 줄이고 소비지 직출하, 도시대형마트 연계 등으로 어업인들에게 이익이 바로 돌아가는 방안 검토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효과적인 유통구조가 확립되면 상당한 효과가 기대됨 	
상업·일반 서비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인 농어업인의 감소로 어려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광 등과 연계되는 제한적인 경우에만 효과가능 	

광공업 단지 개발, 어촌에서 줄어드는 상업·일반 서비스 사업 등은 효과가 제한적인 것으로 판단되어 핵심적인 어업의 소득 증대 방안이 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반면에 특산품 개발, 가공산업 개발, 관광 소득원 개발, 유통 효율화 등의 사업은 국내 여건상 발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며 어업생산물이나 어촌자원의 활용과도 연계될 수 있어 앞에서 언급된 전체를 충족시킬 수 있는 것들이다. 따라서 이를 중심으로 어업의 소득 증대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에서는 앞에서 논의에 입각하여 어업의 소득 증대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위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보면 어촌의 소득은 본원적 소득인 어업 소득과 어업의 소득으로 이루어진다. 즉, 어업소득의 전체 구조는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Y = f(y, d1, d2, d3, d4, \dots)$$

Y : 어촌소득, y1 : 어업소득, di : i번째 어업의 소득 항목(〈표 6〉의 소득개발방안 항목)
 본 연구에서는 먼저, 이들이 어업소득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검토하였다.

3. 실증 분석

여기에서 여기에서는 y1에는 어업소득 비율을 대용치로 하여 분석에 이용하였으며 어업의 소득원들은 정확히 어느 정도 기여하는지 알 수 없어 각 어업의 소득원별로 소득이 있는지의 여부만을 조사하여 이들을 더미(dummy) 변수로 처리하여 다음과 같은 식에 의거하여 분석에 이용하였다.

$$Y = f(y1, d1, d2, d3, d4, \dots)$$

Y : 어촌소득, y1 : 어업소득 비율, di : 어업의 소득(더미변수)

본 연구에서는 전국 150여명이 어업인을 대상으로 2004년 2-3월에 걸쳐 실시한 설문조사에 의거하여 어업소득 결정 요인을 파악하였다.

이렇게 하여 소득 함수를 추정하면 〈표 7〉과 같이 어업 소득비율(y1)만이 계수의 유의성을 갖는 것으로 나타나고 이를 추정된 소득 함수식으로 나타내 보면 다음과 같다.

$$Y = 0.175 + 0.128y1(\text{어업소득 비율})$$

즉 어업소득에는 1차적으로 어업 소득 비율만이 유의한 영향을 미치며 어업 소득 비율이 높을수록 어업 소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어업의 소득을 나타내는 각종 변수에서는 유의한 변수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앞의 〈표 1〉의 통계상으로 나타난 바와 같이 특별한 겸업 소득이 없다는 것과 일맥 상통한다.

따라서 아직까지는 개별 어업의 소득원들이 우리나라 어업인들의 소득에 중요한 부분이 되지 못하는 것이 실증되었다. 그러나 농업이나 일본의 사례를 볼 경우 정책적 추진 여하에 따라서는 향후에 이러한 패턴은 변할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되어 이에 따른 준비와 대비를 하여야 할 것이다. 이하에서는 어업의 소득 증대 방안을 검토하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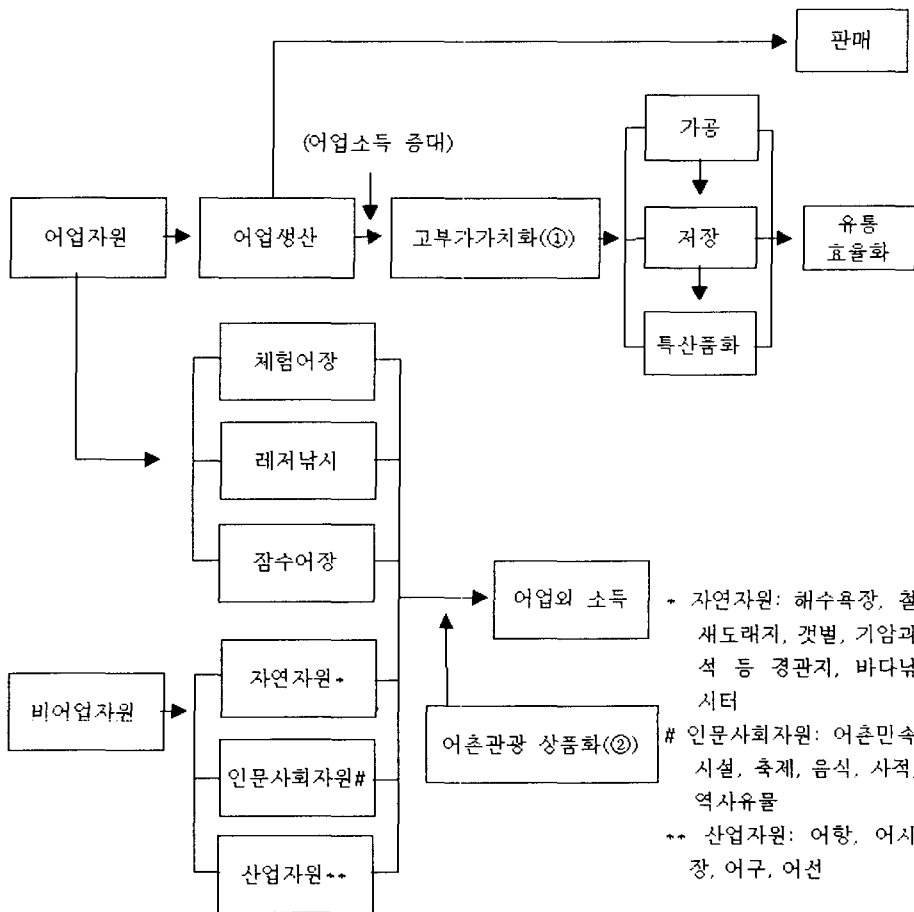
〈표 7〉 수산물 총소비량에 대한 다중회귀분석 통계량

종속변인	독립변인	b	beta	t	R ²
어촌소득	어업소득 비율	.128	.394	9.282**	R ² = .155 F = 86.159** C = .175

*p < .05, **p < .01, C=constant

4. 어업의 소득 증대 방안

위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도출된 어업의 소득 향상 방안은 <그림 2>와 같이 설명될 수 있는데 여기에서 ①은 기존어업 소득의 확장 선상에서 가공·저장·특산품 유통에 의한 기존 어업생산물의 부가가치 제고로 어업의 소득을 높이는 것이고 ②는 어업 및 비어업자원의 어업의 소득화 방안으로 각종 어촌자원의 관광상품화에 의한 소득 제고를 의미한다. 실제로 어업인들의 소득 증대 촉진을 위해서는 가급적 ①방안과 ② 방안을 동시에 활용하여야 할 것이다. 이하에서는 각 방안의 잠재력에 대하여 평가해 보고 관련 조사 자료와 사례를 통하여 이 소득 향상 방안의 적절성에 대하여 검토하고자 한다.



<그림 2> 어업의 소득 모형

1) 부가가치 제고

부가가치 부분에서는 특히 지역특산품 제조, 가공품 생산 등이 주류를 이루고 저장 등의 기능도 가공과 밀착되어 있어 본 연구에서는 주로 가공을 중심으로 서술을 하고자 한다. 현재 우리나라의 수산 가공상의 위치와 앞으로의 기술 발전에 의한 발전 잠재력이나 사회적인 가공품에 대한 요구 등이 평가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현재 우리나라의 수산 가공 산업의 평가를 위해 한일간의 비교를 하면 <표 8>과 같다. 한국은 전체 생산물중 저차, 고차를 합친 가공 상품의 비율은 2001년도에 18% 정도의 수준이나 일본의 경우에는 38%에 달한다. 따라서 앞으로 우리 수산 가공 생산물의 비중을 높이는 등 각종 산업의 발전에 의한 부가가치의 제고가 요망된다. 가공을 통해 저장성 개선, 특산물화 등 다양한 부차적인 부가가치 기능들이 함께 수행할 수도 있게 된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아직도 견제품, 염신장품 위주의 저차 가공이 주류를 이루고 있어 앞으로는 어촌에서도 고차 가공 쪽으로 바꾸어 이를 통해 부가가치를 창출하여야 한다. 특히 고차 가공은 자본과 기술의 개발도 때로는 요구되므로 이에 대한 정부차원의 정책적인 배려가 크게 요망되고 이에 대한 상세한 연구도 필요하다.

<표 8> 한일 가공품 생산 비교(2001)

(단위 : 천톤, %)

가공품	한국	일본	비고
일반 가공			
고차	293.1(60.6)	1,632.8(72.5)	
저차	190.5(39.4)	619.2(27.5)	
계(A)	483.6(100.0)	2,252(100.0)	
생선 냉동품	1,063	1,584	
국내생산액(B)	2,665	5,976	
A/B×100(%)	18.1	37.7	

2) 어촌관광 도입 가능성

우리나라는 동·서·남해 약 12,800km에 이르는 해안선에 산재한 어촌 지역에 풍부하고 다양한 관광자원을 보유하고 있다. 어촌에서의 관광자원은 <표 9>와 같이 풍부한데 실제로 개발률은 미미한 편이다.

이러한 어촌 지역을 이용하여 최근에 지역마다 주요 거점 어항어촌을 중심으로 관광사업이 활발히 이루어지기 시작하고 있다. 이를 보다 현실적으로 조사한 내용은 <표 10>과 같으며 실제로 보통이상의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는 지역은 전체의 약 75%를 차지하고 있어 개발 열기가 상당히 활발해지고 있는 편이다. 따라서 이러한 어촌관광 자

〈표 9〉 어촌의 자원 잠재력

(단위 : 척, %)

종 목	보유현황	비 고
낚시어선	3,672척	2001 10월 현재
바다낚시 가능한 갯바위	73.9%	전체어촌 대비
넓은 갯벌	47.7%(45.0%)	"
기암괴석 · 해안절벽	46.6%(33.7%)	"
해수욕장	42.0%(49.1%)	"
다도해적인 경관	33.0%	"
해저다이빙 공간	27.3%	"
철새 서식지	(25.4%)	"
방풍림	(26.0%)	"
바다 갈라짐	(11.8%)	"
하천 · 하구언	(14.8%)	"
굴	(13.0%)	"
수목 및 화초	(18.3%)	"

자료 : 황기형 · 이승우, 「주민참여에 의한 어촌관광개발 활성화 방안 연구」, 2000. 12. 및 농림부, 「어촌지역 관광 개발에 관한 연구」, 1996. 10. ()안은 농림부의 연구 결과임.

〈표 10〉 지역별 어항어촌의 관광활동 현황

(단위 : 개소)

지역	관광 활동 현황					총합
	매우 활발	활발	보통	미약	매우 미약	
인천	0	7	3	0	0	10
부산	0	2	1	0	1	4
울산	0	1	5	0	0	6
강원	7	7	3	2	0	19
경기	0	1	2	0	0	3
경남	7	12	20	11	0	50
경북	1	3	7	5	0	16
충남	13	11	10	1	0	35
전남	5	16	30	19	12	82
전북	0	0	3	2	0	5
제주	0	2	0	2	0	4
합계	33(14.1%)	62(26.5%)	84(35.9%)	42(18.0%)	13(5.6%)	243(100%)

자료 : 해양수산부, 「전국어항개발 투자효과 분석 및 개발 방안 자료」, 2001. 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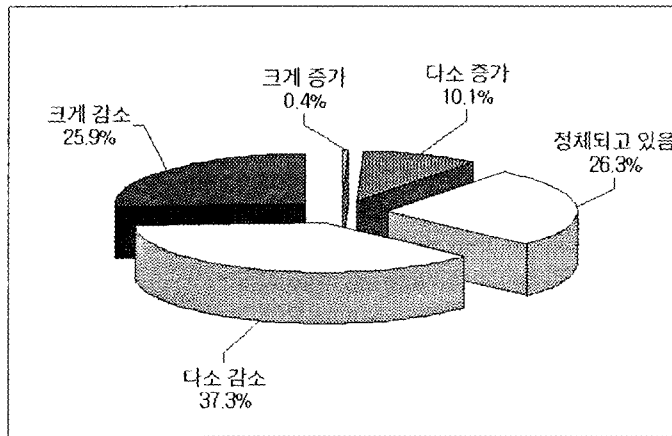
주 : 조사대상으로 전국의 지방어항 이상 234개 어항이 선정되어 분석됨.

원 활용을 통해 어촌 소득 증대로 연계시키려는 노력이 보다 구체화되어야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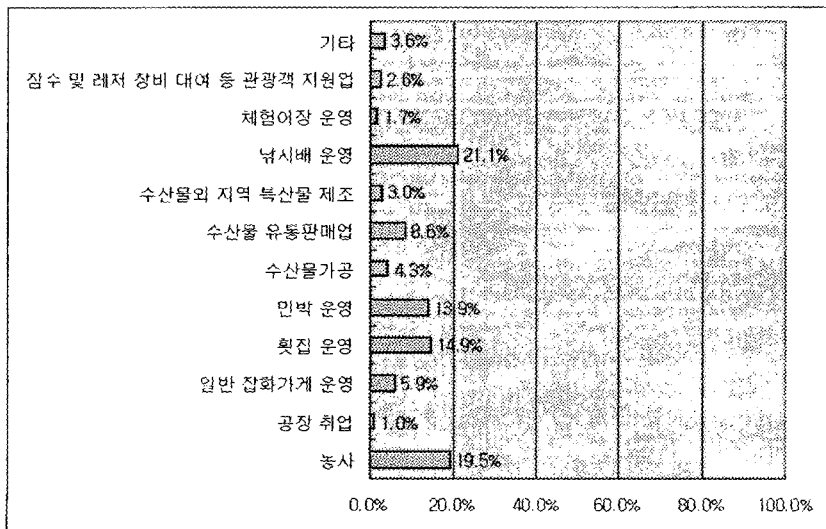
3) 어업인 의견 조사

어촌계의 어업의 소득관련 현황을 조사하기 위하여 설문조사를 전국적으로 실시하였다(김성귀(2003)). 설문조사 대상 어업인은 동서남해 지정어항 지역내 228명의 어업인이고 조사는 2003년 5월~6월 중에 각 지역 해양수산청 등 관련 계통을 통해 이루어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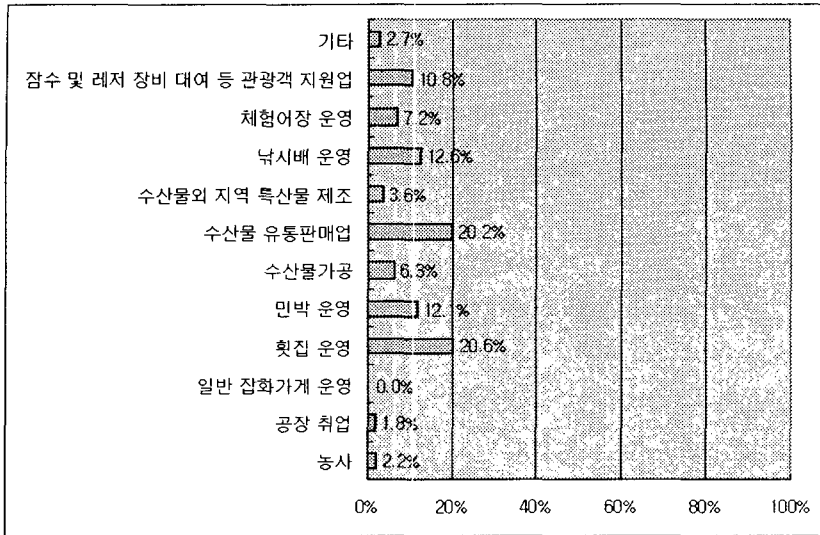
먼저 <그림 3>에서 최근의 응답 어업인 소득 변동 상태를 살펴보면 다소 감소 37.3%, 크게 감소 25.9%로 63.2%가 감소하여 소득 감소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것으



<그림 3> 소득 변동 상태



<그림 4> 현재의 어업외 소득원



〈그림 5〉 향후 어업의 소득원

로 나타났다.

현재의 주요 어업의 소득원으로는 낚시배 운영(21.1%), 농사(19.5%), Hits 운영(14.9%), 민박운영(13.9%) 순으로서 농업을 제외하면 낚시배, Hits 및 민박 운영 등 어촌관광 시설의 운영이 어업의 소득원의 주종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수산물 유통판매, 가공, 특산물 제조 등은 아직도 낮고 특히 노임소득을 얻을 수 있는 수 있는 공장 취업(1.0%) 등의 비율은 지극히 낮았다.

향후 어업의 소득원으로 비중이 늘어난다고 응답한 것은 수산물 유통판매업(현재 8.3%→20.2%), Hits 운영(현재 13.8%→20.6%), 수산물 가공(현재 4.2%→6.2%), 잠수·레저장비대여(현재 2.1%→10.8%), 체험어장 운영(현재 0.4%→7.2%) 등이다. 비중이 줄어든다고 응답한 것은 농사(현재 20.8%→2.2%), 낚시배 운영(현재 22.9%→12.6%) 등이다. 따라서 향후 수산물 가공·유통이 현재의 12.9%에서 26.5%로 늘어나 이 분야가 향후 주요한 소득원의 하나로 자리 잡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아울러 Hits, 레저장비 대여, 체험어장 등의 어촌관광 부문 증대를 예상하고 있어 앞에서 제시한 모형의 어촌소득 증대 방안 모형과 어업인들의 의견도 거의 일치하고 있다.

4) 사례 분석

본 연구에서는 제주도 고산 마을을 사례로 선정하여 본 연구와 관련된 분석을 하고자 한다. 고산마을에 대한 정확한 조사 통계치가 나온 것이 부족하지만 나름대로 어업의 소득의 증대가 큰 지역이다. 따라서 개략적으로 소득 증대의 원인을 분석하는데는 큰 무리가 없는 것으로 보여 사례로 선정하여 분석하였다.

어촌 소득 증대 방안에 관한 연구 : 어업의 소득을 중심으로

연안촌락에 해당하는 고산마을은 1, 2구로 구성되며 전체 947가구 중에서 대부분 2구에 거주하는 165가구가 어가 인구이며 고산마을 인구 2,870명의 7.14%인 205명이 어업에 종사하고 있다. 고산마을의 어업인구는 '95년 190명에서 '99년 205명으로 어업 종사자가 다소 증가한 편이다.

고산어촌계의 마을어업은 2건이 있으며 총 341ha의 점유면적에 마을공동어업으로 패류 및 해조류양식을 하고 있다. 그리고 '99년 고산어촌계의 수산물 생산실적은 총 물량 325톤에 1,764백만원이며 주된 생산물은 소라, 전복, 톳, 오분자기 등이다. 이들을 생산하기 위한 마을 어장은 < 표 11 > 과 같다.

< 표 12 > 는 고산어촌계의 어가 인구 변화 추이와 함께 고산어촌계의 어선세력을 나타낸 것이다. 고산어촌계의 어가 인구는 '97년을 기점으로 감소세에 있다가 다시 증가하고 있는 바 후술하는 소득 증대와도 무관치 않은 것으로 보인다.

고산마을의 어선세력 또한 '97년까지 감소하다가 다시 증가하여 현재 45척에 이르고 있으며 무동력선은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어업 활동과 함께 복제주군은 낚시어선을 통한 어가수입도 상대적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마을 전체 어선 45척 중 37척이 낚시어선으로 등록되어 유어선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고산마을은 환경면에서 낚시어선 사업이 가장 활발하여 유어선 사업을 통한 소득이 어업외 소득의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어선 중 일부는 전업 낚시어업만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 표 11 > 고산마을의 어업권 현황

구 분	허가번호	어업종류	업 종	점유면적 (ha)
고산	복제주 제23호	공동어업	패류, 해조류	57
	복제주 제55호	공동어업	패류, 해조류	284

자료 : 제주도, 「어촌체험 관광마을 조성 기본계획」, 2001. 9.

< 표 12 > 고산어촌계 어가 및 어선현황

년 도	인구		어선세력		
	전체	어가	무동력	동력	합계
'95	2,340	190	7	29	36
'96	2,267	186	7	35	42
'97	2,173	184	-	37	37
'98	2,173	224	-	45	45
'99	2,870	205	-	45	45

자료 : 알과 동일

〈 표 13 〉 낚시어선 운영상황

(단위 : 천원)

낚시어선		운항일수 (평균)	이용객수 (평균)	수지내역		
신고척수	운영척수			수입	지출	손익
94	94	5,769 (61)	27,478 (292)	399,985	148,731	251,254

자료 : 앞과 동일

〈 표 13 〉은 고산마을 포함한 북제주군의 낚시어선 운영상황과 운영을 통한 수입에 대한 것으로 낚시어선의 평균 운항일수는 61일이며 하루 평균 292명이 바다낚시를 즐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낚시어선 1척당 연간 순수 소득은 2,673천원인 것으로 조사되어 어업의 소득에 상당한 기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에도 이 마을에서는 먼저 제주 지역에서 나는 한치 말리는 건조 가공이 전부터 있어 왔으나 물량이 크게 모자라자 이와 더불어 강원도에서 어획된 오징어를 구입하여 유희 노동력을 이용, 고산 마을의 적당한 자연 바람으로 건조시켜 맛있는 특산 건조 오징어로 가공·판매하고 있다. 이 상품은 제주의 관광지적 특성 때문에 수요가 높아 판로가 좋으며 현지 관광객들에게도 상당한 인기를 얻어 마을에서 상당량 직판되고 있다. 어업인들은 여기에서 높은 매출을 올려 이 오징어 건조 사업이 주소득원으로 자리 잡고 있다. 따라서 마을 내에서는 오징어 건조를 위해 거의 전 노동력이 동원되다시피 하고 있어 완전 고용을 달성하는 등 어한기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이로써 수산물的高부가가치화를 통한 소득 증대와 관광객들에 대한 특산 먹거리 제공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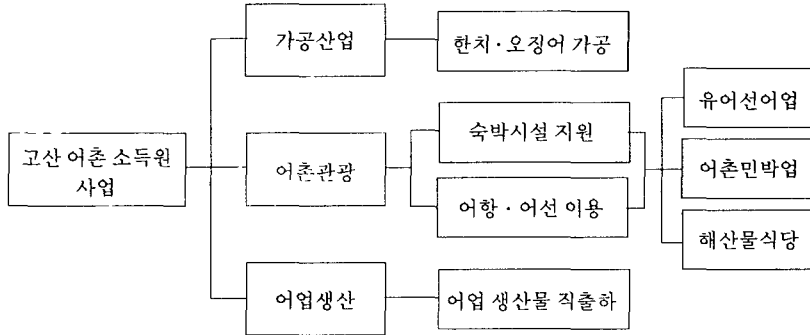
아울러 이 지역에서는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마을 앞바다에 있는 차귀도 등 뛰어난 자연 경관을 배경으로 관광낚시어업을 활성화시켜 상당한 소득을 올리고 있다. 5~6년 전부터 관광낚시어업이 성황을 이루자 타 업종인들도 관광낚시업으로 전업하고 있다⁶⁾. 아울러 이러한 숙박시설이 필요한 관광낚시업의 발전에는 해양수산부에서 1996년에 어촌종합개발 사업으로 지원한 어촌 민박시설 등 각종 시설도 크게 한 몫을 하고 있다(해양수산부(1999))⁷⁾.

현재 고산어촌에서는 이러한 관광어업의 발전으로 자생적인 어촌민박과 횃집 등도 늘어 어업인 소득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이로 인해 고산 어촌계의 소득은 특히 1995년 이후 급성장하여 지역 수협 내 어촌계들 중에서 수위를 달리고 있다. 이러한 소득

6) 시내 택시 운전을 하던 이들까지도 소득이 높은 관광낚시업으로 전업하고 있을 정도라고 한다.

7) 이 당시 어촌종합개발사업으로 총 11억 5천만원을 투자하여 34곳에 해안가로등을 설치하고 콘도형 민박시설 2층 건물 6동과 관광낚시선 1척을 지원하였으며 낚시선의 원활한 점안을 위한 선착장 170m를 시설하였다. 이 당시 고산어촌계의 민박 시설은 전국 어촌 최초로 규모화된 콘도형 숙박시설이었다.

어촌 소득 증대 방안에 관한 연구 : 어업의 소득을 중심으로



〈그림 6〉 고산 어촌계 소득 구조의 내용

〈표 14〉 고산어촌 주변(북제주군 한경면)의 어촌계별 소득 변화 추이

연도 \ 어촌명	1990	1995	1999	2001	성장률(%) ('95~'01) / ('95~'01)	비 고
고산	10,753	19,214	25,900	24,900	8.0/15.2	
용수	10,354	19,500	22,850	22,900	7.5/14.3	
용남	11,209	19,441	23,900	24,100	7.2/13.6	
신창	9,024	19,680	24,050	23,800	9.3/3.2	
두모	10,078	17,590	21,900	23,000	7.8/4.6	
금등	8,728	16,080	19,500	19,800	7.8/3.5	
판포	8,175	18,420	20,850	21,200	9.0/2.4	

자료 : 수협, 「어촌계 현황」, 각년도.

증대 기여도가 큰 소득증대 요인들을 표시해 보면 〈그림 6〉과 같으며 기존의 어업 생산에 부가가치 제고를 위한 오징어 가공과 바다낚시 등 어촌관광사업 등의 수익모델이 추가되었다. 이는 본 연구에서 제시한 어업의 소득 모델과 거의 일치한다.

V. 결 론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수산업은 어업자원의 고갈과 이에 따른 상대적인 낮은 소득 증가로 각종 어촌사회의 문제점을 노정시키고 있다. 아울러 어촌사회의 생활환경의 악화, 교육의 질 하락, 노령화·부녀화 심화, 정보화의 낙후 등으로 어촌의 공동화는 가속화되고 있어 이에 대한 시급한 대책 수립이 요망된다. 이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요인은 아무래도 어촌의 소득 감소라고 말할 수 있다.

여러 가지 어촌의 소득 증대 방안 중에서 자원의 감소로 더 이상의 어업 소득 증대는

어려운 상황에서 이제는 새로운 소득 증대 방안을 검토해야 할 시점이라고 판단된다. 특히 최근에는 어업외 소득원 개발이 주목을 받고 있어 이러한 것들을 동시에 고려하면서 어촌 사회가 가지는 기타의 여러 가지 특색을 평가하여 소득 증대 방안이 수립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먼저 농업의 농외 소득증대 정책의 사례를 살펴보고 일본의 농어업 소득 구성요인을 검토하였다. 이들에 대한 평가를 통해 어업외 소득 개선 방안을 검토하였다. 실증 분석에서는 어업소득의 비율만이 어촌소득에 영향을 미치고 어업외 소득원들은 아직은 어촌소득에 그다지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향후를 대비한 어업외소득 증대모델을 수립, 제시 하였다.

향후 어업외 소득 개선을 위해서는 어업 생산물의 부가가치를 가공·유통 등을 통하여 높이는 방안과 어촌관광 등 어촌이 가지는 각종 관광 자원의 개발을 통한 방안이 제시되었다. 국내에서의 어업 가공 등을 통한 각종 부가가치 제고의 잠재력과 어촌관광 개발 잠재력은 상당히 높은 것으로 평가되었다.

이러한 모델을 검증하기 위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어업인들도 역시 가공·유통의 중요성에 대하여 높은 점수를 주면서 아울러 어촌관광 사업도 함께 중요하게 여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도 고산 어촌계의 사례를 통하여 어촌에서의 소득 증가는 어업생산물의 부가가치 제고와 동시에 어촌관광자원의 효과적 활용을 통해 가능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앞으로 어촌의 소득을 높이기 위해서는 첫째로, 어업생산물의 부가가치 제고가 요망된다. 둘째로는 어촌관광이 가능한 지역에서는 지역 어촌의 특색에 맞는 지역 어촌관광 사업의 발굴이 요망된다. 이러한 시책에 맞추어 어촌의 소득 증대 정책이 이루어진다면 어촌의 공동화 현상은 개선되고 어촌에서 활력이 되살아 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아직 국내 어업소득 증대 방안에 대한 연구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관계로 어업외 소득 증대의 개략적 모델 제시에 만족하였다. 향후 본 연구에서 제시된 모델 등을 토대로 이를 확장하거나 본 연구에서 제시된 모델에 대한 현실적 적용 방안 등 보다 심층적인 연구가 요망된다.

참고문헌

경제기획원 조사통계국, 도시가계연보, 2000.

김병택, 한국의 농업 정책, 서울, 도서출판 한울, 2002 3.

김성귀, "지방자치단체의 어항관리", 국가어항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연구, 2003. 6, pp. 75 ~ 138.

_____, 해산어류 양식업 발전방향의 정립에 관한 연구, 해양수산개발원, 2002. 12.

- 박기혁, 나훈수, 현대농업경제학, 박영사, 서울, 1995 1.
- 수산청, 일본어업백서, 1998.
- 수협, 어촌계 현황, 각년도.
- 이강우, “어가소득에 관한 조사연구”, 수산경영론집 Vol. Ⅷ No. 1, 1982 6.
- 제주도, 어촌체험 관광마을 조성 기본계획, 2001. 9.
- 해양수산부, 수산행정기본자료, 2002.
- _____, 수산환경 변화와 우리 수산업의 진로, 2002. 3.
- _____, 어가경제조사결과보고, 2001.
- _____, 어촌관광 증장기 발전계획 수립에 관한 연구, 2001. 11.
- _____, 어촌종합우수사례집, 1999.
- _____, 전국어항개발 투자효과 분석 및 개발 방안 자료, 2001. 9.
- _____, 해양수산통계연보, 각년도.

A Study on Policies to Increase the Income of Fishing Villages Focused on Non-fishing Income

Kim, Sung-Gwi · Hong, Jang-Won

Abstract

The reduction of fishing grounds due to the establishment of EEZ system among China, Japan and Korea together with the depletion of fish resources by pollution of waters and successive reclamation projects along the east and the south coastal lines has made many problems in coastal communities including the decrease of population, the deepening aging phenomenon in the fishery society and the fall of relative income level compared with those of rural and urban residents. Especially, the income level of a fishing household is 90 % of a rural resident and 70 % of a urban resident. The income of a fishing household consists of 55% of fishing income, 20 % of a agricultural source, 20 % of income from non-fishing areas, and 10 % of transferred income.

Compared with that of a Japanese fishing household which has more diverse income sources such as 62 % of income coming from non-fishing areas through being hired in manufacturing firms, etc., that of Korean ones is highly dependent upon fishery and agriculture, so that the diversification of income sources is urgently needed, especially in non-fishing areas.

This paper shows that as a model to upgrade fisherman's income level, firstly, it is necessary to enhance the value-added of fishing products through processing and new innovation of distribution process and, secondly, to promote tourism in fishing villages.

To ascertain this model, a questionnaire survey to fishermen was carried out and showed that they expressed a strong support for the increase of income by the value-added process through processing and innovative distribution system and the active introduction of tourism in fishing villages.

A case study on Gosan cooperative in Jeju was also introduced to identify the

rationale of the suggested model and this study proved the validity of the model again.

Conclusively speaking, to level up the fisherman's income requires the value-added activities through the introduction of product processing and new distribution system together with the introduction of marine tourism in fishing villages.

Key words : Non-fishing Income, Value-added, Tourism in villages.